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5. 12. 7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산업통상기업정책과 과장 이은청 / 사무관 김창완 (Tel. 044-200-2227)
12.7(월) 15시(행사종료)이후 사용			

“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까지 확산”

- 국무총리, 국내 최고 수준을 구현하고 있는 'LS산전 청주공장' 방문, 관계자 격려
- “올해는 스마트공장 보급의 원년, 현장과 소통하며 걸림돌 해결해 나갈 것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(월) 국내 최고수준의 스마트공장*을 구현하고 있는 LS산전** 청주공장을 방문해 스마트 공정현장을 시찰하고, 관계자들과 스마트공장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.

* 제조 쏠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 강화,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

‘14년도 시범사업 통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277개사 분석 결과 불량률 33% 감소, 원가 23% 절감, 납기 27% 단축 등 성과 창출 (’15.5월, 대한상의)

** (LS 산전) 국내 최고수준의 스마트 공장 구현 뿐 아니라 설비자동제어장치 등 스마트 공장의 핵심장치 생산 중 (1974년 설립, ‘14년 매출액 2.3조원, 직원수 3,535명)

□ 이날 황 총리는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(3.19일)에서 ‘스마트공장 확산 전략*’이 포함된 ‘제조업 혁신 3.0 전략’을 발표하고 이를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,

* ▲ 매년 2천억원 이상 투자, 연 1500개 이상 구축, ▲ 스마트 공장 R&D 로드맵 수립, ▲ 관련 표준·인증 등 기반 구축, ▲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 운영 등 (스마트 공장 추진 개요 첨부 자료 참고)

○ 올해를 스마트공장 보급의 원년으로 삼고 ‘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겠다’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또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스마트 공장화를 지체시키는 걸림돌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이어서 황 총리는 자동화공정을 시찰하면서 국내 스마트공장 기술 수준,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계획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,
 -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사업성과 등을 확인하고,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.

- (추진배경) 선진국 제조업 부활,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및 엔저 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제조업 전반의 위기감 심화
 - * 수출 실적(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증감률, %) : △3.4(7월) → △14.7(8월) → △8.3(9월)
- 스마트공장을 통한 우리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활력 제고 시급
- (주요내용) 제조 소과정에 ICT를 융합하여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도모
 - * '14년도 시범사업 통해 구축한 277개사 분석 결과 불량률 33% 감소, 원가 23% 절감, 납기 27% 단축 등 성과 창출 ('15.5월, 대한상의 조사)
- (보급·확산) 매년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年 1,500개 이상 구축, 2020년까지 1조원* (민관공동)을 투자하여 1만개 확산** 추진
 - * 민간(동반성장기금, 자체부담 등): 약 7.2천억원, 정부(산업부, 미래부 등): 약 3천억원
 - ** 확산계획(누적, 개사) : ('15) 1,200 → ('16) 2,600 → ('17) 4,000 → ('20) 10,000
 - 11월말 기준 1,094개(누적) 구축지원중, 연말까지 1,200개 목표달성 전망
- (R&D) 보급사업과 연계한 「스마트공장 R&D 로드맵」 수립, 즉각 적용 가능한 현장형 R&D 과제 개발 착수(6개과제, 8월~)
- (기반조성) 표준·인증 등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 조성
- (추진체계) 「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」 설립('15.6월)으로 전략적·안정적 사업수행 기반 마련
 - * '16년부터 총괄관리는 '추진단', 지역 현장 점점 기능은 '창조경제 혁신센터' 수행
- (향후계획)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하여 '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
 - 자발적 구축 분위기의 대대적 확산 위해 “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혁신 수단”임을 지속 홍보